

I. 남유다 왕과 백성들에게(7-8장)

Intro-setting (역사적) 배경: 아하스 시대의 전쟁(아람-북이스라엘 연합군 vs 남유다)

이사야 7장 1-2절 말씀

- 01 웃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
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야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
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
- 02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
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
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

A-1. 유다왕 <아하스>를 향한 하나님의 선포: 삼가며 조용하라/두려워말며 낙심말라

이사야 7장 3-9절 말씀

- 03 그 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
너와 네 아들 스알야습은
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
- 04 그에게 이르기를
너는 삼가며 조용하라
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야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
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지깥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
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
- 05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야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
- 06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
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
- 07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
- 08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
육십오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
- 09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야의 아들이니라
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

A-2 아하스를 향한 여호와와의 두 번째 말씀: 약속-임마누엘

이사야 7장 10-16절 말씀

- 10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
11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
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
12 아하스가 이르되
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
- 13 이사야가 이르되
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
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
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
- 14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
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
- 15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영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
- 16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
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

열왕기하 16장 5-12절 말씀

- 05 이 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
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
- 06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
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
- 07 아하스가 앓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
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
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
- 08 아하스가 여호와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앓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
- 09 앓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
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
- 10 아하스 왕이 앓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
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
- 11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
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
- 12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

A-3 앓수르 왕이 오는 날: 구원이 아니라 파멸이 오게 될 것이다

이사야 7장 17-25절 말씀

- 17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
너와 네 백성과 네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
곧 앓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
- 18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
앓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리니
- 19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
- 20 그 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어 온 삭도 곧 앓수르 왕으로
네 백성의 머리 털과 발 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
- 21 그 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
- 22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영긴 젖을 먹을 것이라
그 땅 가운데에 남아 있는 자는 영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
- 23 그 날에는 천 그루에 은 천 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
짚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
- 24 온 땅에 짚레와 가시가 있으므로
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
- 25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짚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
그 땅은 소를 풀어 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